

5·18 규명 요구로 촉발... '국본' 전국 첫 출범

6월항쟁 30주년
민주화 30년 미래 30년

〈상〉 5월 광주가 뿌리다

‘6월항쟁’ 30주년이다. 1987년 6월항쟁은 광주를 때놓고 논할 수 없다. 그 뿌리가 5·18민중항쟁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7면〉

5·18은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 아욕이 자행한 국가권력의 살인이었다. 하지만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은 이를 폭동으로 규정했고, 조금이라도 정권에 반대하면 총칼로 짓밟았다. 당시 민주세력은 숨죽였지만, 5·18의 실상을 알리는 게 민주화의 첫걸음을 알았다. 대학가를 비롯해 종교·노동·문화계 등에서는 5·18을 알리는 사진전·비디오 상영 등을 개최했다.

5·18의 진실을 알리는 게 당시 민주세력의 당면과제였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박종철 고문 치사·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 등이 벌어졌다.

실제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된 박종철 열사는 ‘5월광주’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미문화원을 점거농성하자 이를 지지하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5일간 구류를 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광주시민께 드리는 글’에서 “5공 군부 독재정권 시절 부산의 민주화운동은 ‘5월의 광주’를 부산시민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노무현과 함께 부산가톨릭센터에서 연 광주비디오 관람회를 보려는 부산시민이 줄을 이었다. 그 열기는 6월항쟁으로 이어졌고, 부산가톨릭센터는 부산 6월항쟁의 중심이 됐다”며 “5월광주”의 의미를 강조했다.

◇국본, 광주서 첫 결성=6월항쟁을 이끈 조직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다. 1987년 5월27일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종교·정치·노동·문화계 등 각계 인사 150명이 모였고, 2191명의 발기인을 대표해 국본을 결성했다. 그해 6월10일 대규모 시위를 선포하고, 전국에서 6월 항쟁을 이끌었다.

광주는 서울보다 9일 앞서 5월18일 국본을 발족했다. 전국 최초 지역본부다. 이어 부산(20일)·대구경북(21일)·전북(25일)에서 국본이 결성됐다. 그리고 서울에서 결성되면서 전국 조직이 됐다.

당시 국본 전남본부가 발명한 ‘민주화를 위한 공동선언’에는 “호헌반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전국으로 확산”이라며

전국 대학생들 광주 성지순례

광주 진실 알리려 시위 참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기폭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광주서 첫 결성 서울 등 확산

금남로 대행진에 50만명 참여

경찰 진압 엄두 못내고 후퇴

“전남본부 전국 처음 5월18일 결성. 5월27일에는 전국본부 결성” 소식을 알렸다.

전남본부는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21곳이 참여했으며, 5·18민중항쟁 7주년을 맞아 광주 망월포지에서 1000여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추모제와 함께 결성됐다.

◇대행진 참가 서울 25만·광주 50만=광주의 ‘불굴의 저항’은 전국의 민주세력에 큰 힘이 됐다.

5·18민중항쟁 이후 광주·전남은 매년 5월이면 ‘5월투쟁본부’를 꾸려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5월투쟁기간을 선포했다. 투쟁기간동안 전국 각지에서 물러난 대학생·노동자·시민들은 ‘광주 성지순례’를 했다.

당시 광주에서는 5월14일 ‘5·18정신계승을 위한 400만 도민 민주화 대행진’을 시작으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1·2·3차 범도민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종교계·시민사회·노동·농민·학생운동이 망라된 국본 전남본부의 결성은 성지순례를 온 타지역 민주세력에게 자극이 됐고 투쟁의 동력으로 작동했다.

6월항쟁기간 광주를 가장 열정적이었던 국본 소식지 1호에는 “6월26일 국민평화대행진에 37개 지역 130여만명이 참가해 민주역량을 폭발시켰다”고 평가했다.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된 대행진에 서울 25만5700여명이 참여하는데 비해 광주는 2배인 50만명이 참가했다. 소식지에는 “엄청난 인파에도 놀란 경찰은 진압의 엄두도 내지 못하고 후퇴, 도청 중심으로 반경 800m 지점에서 시위대와 대치했다”며 “경찰 저지선 밖에 운집한 50여만명의 시위대는 ‘광주시민 대동단결, 독재타도, 미국반대 등을 외치며 하나가 됐다’고 기록했다. 부산 5만여명, 대구 4만여명이 참가했고, 전북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의 15만 인파가 거리를 메웠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30년 전 금남로... 이한열 열사 영결식 추모 인파 화순 출신 연세대생 이한열(당시 20세) 열사가 1987년 6월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졌다. 이 열사의 영결식이 열린 7월9일 광주 금남로에는 수십만명의 추모인파가 몰렸다. 이 열사의 희생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이어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이 열사는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됐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5·18 진상규명 컨트롤타워 없다 ▶6면

통일의 길 - NK 비전센터 ▶18면

레알 UEFA 챔피언스리그 2연패 ▶20면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인사청문회 정국 ‘2라운드’

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 7일 결정...김동연·강경화·김이수 검증

이번 주 인사청문회 정국 ‘2라운드’가 시작된다. 야권이 ‘부적격’ 딱지를 붙인 인사들이 급주 국회 검증대에 오르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우선 오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한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7~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특히 7일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결과보고서 채택 안건도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야권은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저지 또는 부적격 의견 명기를 시도하는 등

시에 세 후보자를 겨냥해 날카로운 송곳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권은 자녀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문제는 물론 부당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된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김이수 후보자 역시 한국당과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불가론’이 확산하는 분위기이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낸 점을,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둔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가 군법무관 시절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부적절한 판결을 했다는 점을 각각 큰 문제로 보고 있다. ‘흙 수저 고졸 신화’의 주인공인 김동연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점에서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치매 국가가 책임... 치료비 본인부담 10% 이내로 단 1원의 예산이라도 일자리 창출 이어지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단 1원의 국가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문 대통령은 이날 개통한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www.jobs.go.kr)에 올린 인사말을 통해 “청와대가 일자리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은 높이고 ‘늘리고, 줄이고, 높이고’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일

지리를 늘리고 복지와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에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세종동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 간호 종사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치매 관련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을 10% 이내로 확 낮추겠다”며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진료도 다 대상이 되도록 전환해서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국가책임제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복지부에서 6월 말까지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주시기로 했다”고 당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또 AI 공포... 전북·제주 의심사례, 전남도 긴급 방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다른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남도가 4일 긴급 방역에 들어갔다. 전남은 지난해 11월 해남에서 첫 AI가 발생한지 6개월여 만인 지난 1일 평시방역체계로 들어간 바 있다. 그러나 제주, 전북 등에서 의심사례가 발생하고, 4일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다시 격상됨에 따라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가금류 사육량이 많은 데다 군산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에서 방역체제를 다시 강화해 도와 22개 시·군

에 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하고, 생산자단체와 계열사 등에 사육농가의 철저한 방역을 유도하도록 했다.

축산·방역 당국은 5일 0시부터 전국 모든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닭 유통을 전면 금지한다.

87개 공동방제단은 전통시장, 제주 노선 공항·항만 인접 사육농가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할 방침이다. 전북과 인접한 담양, 장성, 곡성, 구례, 영광 등 5개 군은 통제·소독 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신동엽, 라미란은 NK뷰키트로 체크합니다

우리나이엔 면역력이 중요하니까

✓ **NK뷰키트**

숫자로 확인하는 NK세포 활성화

문의: 080-340-2222 www.nkvue.com